

## <나중미부>설화의 전승양상과 비극성

정 상 진\*

### 차 례

- |                         |                           |
|-------------------------|---------------------------|
| 1. 서 론                  | 4. <나중미부>설화의 비극적 구조와 그 의미 |
| 2. <나중미부>설화의 전승 및 변이 양상 | 1) 신성혼과 금기를 통한 비극성의 배태    |
| 1) 자료 개관                | 2) 현실적 논리를 통한 비극성의 구체화    |
| 2) 전승 및 변이 양상           | 5. 결 론                    |
| 3. <나중미부>설화의 하위유형과 원형   |                           |

### I. 서 론

이른바 <고동색시>, <우령색시>, <조개색시>, <달팽이 미인> 등 화자에 따라서 달리 명명되기도 하는 <나중미부(螺中美婦)>설화는 전국적으로 유포, 전승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중국 쪽의 문헌에도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의 자생적·토착적 설화는 아닌 것 같다. 곧 이 설화는 일찍이 중국에서 전승되다가 문헌에 정착된 <백수소녀(白水素女)>이야기나<sup>1)</sup> <오감(吳塏)>이야기를<sup>2)</sup> 근간으로 하여 우리의 풍토와 정서에 맞게 재창조되면서 전국

\*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搜神後記』 및 『太平廣記』에 수록되어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世祖 때 成任이 편찬한 『太平廣記詳節』에도 실려 있다.

2) 『太平廣記』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한글로 번역한 『太平廣記諺解』에도 소개

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이해된다.<sup>3)</sup>

<나중미부>설화는 가난하면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노총각과 우렁이·고동·조개·달팽이 등 패류(貝類)에서 나온 미녀와의 교혼에 얽힌 이야기로서, 여기에는 천상적 존재의 하강, 변신, 금기, 이류교구, 관탈미녀 등 다양한 모티프들이 삽입, 결구되어 있어 어느 설화보다도 흥미를 돋우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구비문학대계』에 33편의 각편이 소개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이야기에 대한 전승층의 관심을 짐작케 한다.

설화가 그것이 범세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광포설화이든 특정 지역이나 민족에만 전승되는 민족적 설화이든 간에 민중들의 일상적인 삶의 체험적 산물이라 할 때, <나중미부>설화는 그것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패류 속에서 미인이 나와 인간과 인연을 맺는다는 내용은 경험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 이야기는 일종의 신이한 이적담이라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인간의 삶의 문제가 회색되거나 도외시된 것은 아니다. 우렁색 시를 두고 빼앗는 자와 빼앗긴 자의 갈등은 권력의 횡포에 속수무책인 민중들의 삶의 질곡을 반영하면서 현실성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거물만 없다면 이 민담보다 전설 쪽에 더 가까운 이 설화는 민중들의 원망과 좌절을 선형적, 현실적 기제를 매개로 하여 결구함으로써 서사의 전개가 유기성을 띠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나중미부>설화 각편들의 전승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중에서 원형이 무엇인가를 탐색한 다음, 원형을 대상으로 하여 설화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설화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설화연구 초기에서부터 있었고, 연구 성과 또한 다수 집적되었지만,<sup>4)</sup> 공감하지 않은 바도 없지 않았다. 기왕의 성과들을 독서하면서

---

되어 있다.

3) 손진태 교수는 <백수소녀>설화의(『한국민족설화연구』, 을유문화사, 1981, 31~37쪽), 김현룡 교수는 두 설화의(「나중미부설화고」, 『국어국문학』 55~57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72) 영향에서 형성된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4) 기왕의 연구성과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손진태, 「나중미부설화」,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81.

김현룡, 「나중미부설화형성고」, 『국어국문학』 55~57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72.

필자의 줄건을 보태어 설화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 2. <나중미부>설화의 전승 및 변이 양상

### 1) 자료 개관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조사, 소개된 <나중미부>설화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5)</sup>

| 연번 | 명칭               | 채록지역    | 채록자  | 구연자 | 발표된 책   | 쪽수  |
|----|------------------|---------|------|-----|---------|-----|
| 1  | 총각과 달팽이 처녀       | 강원도 영월군 | 김선풍외 | 김금자 | 대계,2-8  | 869 |
| 2  | 우렁이 마누라 얻은총각     | 충북 영동군  | 김영진  | 박금순 | 대계,3-4  | 328 |
| 3  | 우렁각시             | 충남 공주군  | 박계홍외 | 오영순 | 대계,4-6  | 555 |
| 4  | 우렁각시             | 충남 공주군  | 박계홍외 | 유조숙 | 대계,4-60 | 192 |
| 5  | 우렁색시             | 충남 부여군  | 박계홍외 | 방경숙 | 대계,4-5  | 775 |
| 6  | 달팽이 각시           | 충남 대덕군  | 박계홍외 | 윤민녀 | 대계,4-2  | 525 |
| 7  | 참빛이 된 우렁이 처녀     | 전북 완주군  | 최내옥외 | 박성례 | 대계,5-2  | 537 |
| 8  | 남편을 가르친 우렁색시     | 전북 부안군  | 최내옥외 | 최경호 | 대계,5-3  | 415 |
| 9  | 허물벗고 행복하게 산 우렁색시 | 전북 전주시  | 최내옥외 | 홍태정 | 대계,5-2  | 99  |

유증선, 「<조개색시> 구혼민담 소고」, 『한국민속학』 5, 한국민속학회, 1972.

이수자, 「우렁색시형 설화연구」, 『이화어문논집』 제7집,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1984.

진은진, 「<우렁색시> 설화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95.

최운식, 김기창 공저, 「우렁색시」, 『전래 동화연구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8.

- 5)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 한국설화유형분류집에 33편이 소개되어 있으나, 제주도에서 채록된 <고기가 사람된 이야기>는 <나중미부>설화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한편 <나중미부>설화는 개별적으로 간행된 민담집이나 연구논저에도 소개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제외시킨다. 주지하듯 『한국구비문학대계』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설화를 채록, 집대성한 것으로 여기에 수록된 자료만 대상으로 하여도 본고가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4 한국문학논총 제 33 집

|    |                     |        |      |     |         |      |
|----|---------------------|--------|------|-----|---------|------|
| 10 | 우렁색시                | 전북 전주시 | 최내옥외 | 박옥엽 | 대계,5-2  | 163  |
| 11 | 우렁색시                | 전북 전주시 | 최내옥외 | 이순옥 | 대계, 5-2 | 165  |
| 12 | 우렁색시                | 전북 전주시 | 최내옥외 | 김형순 | 대계,5-2  | 167  |
| 13 | 우렁색시                | 전북 전주시 | 최내옥외 | 박금순 | 대계,5-2  | 224  |
| 14 | 우렁색시                | 전북 전주시 | 최내옥외 | 임사봉 | 대계,5-2  | 225  |
| 15 | 소라 우렁과 결혼한 총각       | 전북 정읍군 | 박순호  | 시봉님 | 대계,5-5  | 310  |
| 16 | 우렁색시                | 전북 정읍군 | 박순호외 | 김판례 | 대계,5-7  | 191  |
| 17 | 우렁색시                | 전북 정읍군 | 박순호외 | 이금녀 | 대계,5-7  | 420  |
| 18 | 병 속에서 나온 색시         | 전북 정읍군 | 박순호  | 송점순 | 대계,5-5  | 702  |
| 19 | 우렁색시                | 전북 옥구군 | 박순호외 | 원대일 | 대계,5-4  | 1096 |
| 20 | 우렁에서 나온 처녀          | 전북 옥구군 | 박순호외 | 나보옥 | 대계,5-4  | 836  |
| 21 | 우렁에서 나온 처녀          | 전북 옥구군 | 박순호외 | 고아지 | 대계,5-4  | 834  |
| 22 | 우렁 속에서 나온 미인        | 전북 남원군 | 최내옥외 | 최판순 | 대계,5-1  | 265  |
| 23 | 우렁이 속에서 나온 미인       | 전남 화순군 | 최내옥외 | 김영동 | 대계,6-9  | 614  |
| 24 | 고동각시                | 전남 해남군 | 이현수  | 이난자 | 대계,6-5  | 170  |
| 25 | 우렁이 속에서 나온 처녀       | 경북 성주군 | 강은혜  | 김경선 | 대계,7-5  | 318  |
| 26 | 고동처녀 덕에 임금된 조서방     | 경북 성주군 | 강은혜  | 박삼선 | 대계,7-4  | 221  |
| 27 | 우렁이 색시 덕에 임금된 사람    | 경북 선산군 | 천혜숙  | 권옥이 | 대계,7-16 | 119  |
| 28 | 돌이 변한 사람과 살다 임금된 총각 | 경북 예천군 | 임재해외 | 윤만세 | 대계,7-18 | 502  |
| 29 | 땅강아지 처녀와 총각         | 경북 군위군 | 최정여외 | 최순금 | 대계,7-12 | 169  |
| 30 | 고동각시                | 경남 하동군 | 김승찬외 | 김금안 | 대계,8-14 | 774  |
| 31 | 우렁이 각시              | 경남 울주군 | 정상박외 | 김금순 | 대계,8-13 | 505  |
| 32 | 우렁이 각시              | 경남 밀양군 | 정상박외 | 김도연 | 대계,8-7  | 541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기도 지역에는 한 편도 없고 강원도 지역에서는 1편만 소개되어 있어 <나중미부>설화의 전승 지역이 주로 중부이남임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전북 지역이 상대적으로 조사 편수가 많으나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구비문학 채록은 조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따라서 조사자가 가능한 한 많은 제보자를 상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설화를 알고 있는 제보자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되었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32편의 각편 중에서 13·15·22·23·31은 자료적 가치가 없다. 자료 13은

우렁이 속에서 미인이 나와 밥을 해 놓는다는 이후의 부분이 생략되어 있으며, 15는 서두부분이 생략된 채 우렁이 속에서 미인과 총각이 같이 살았다는 내용만 지극히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한편 자료 22는 구연자의 기억력 부족에서 인지 내용에 유기성이 없고 결말처리가 갈팡질팡하여 중잡을 수가 없으며, 자료 23은 우렁이 속에서 색시가 나와 밥을 해 놓았다는 내용만 그런 대로 구술되어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구연자가 즉흥적으로 조작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리고 자료 31은 서두와 결말 부분을 생략하고 우렁이 속에서 색시가 나와 밥을 지어 놓았다는 내용만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5편은 제외하고 내용이 그런 대로 온전하게 전해지는 27편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 2) 전승 및 변이 양상

### (1) 총각의 처지와 우렁이 획득

총각은 가족관계·재산·신분 등 여러 면에서 결핍된 존재이다. 그는 홀어머니와 같이(자료 4·7·9·12·14·16·17·18·19·27·30), 또는 혈혈단신으로(자료 1·2·3·6·8·10·11·20·21·24·25·26·28·29·32) 외딴 산골에 기거하면서 야산을 개간하여 연명하거나 남의 집 머슴살이하는 등 미친한 신분의 노총각이다.<sup>6)</sup> 여기서 노모의 존재 여부는 우렁색시가 고을 원이나 임금에게 납치되는 계기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후술하겠지만, 노모가 있는 각편의 경우, 우렁색시가 시어머니 대신에 밥을 이고 남편의 일터에 가다가 원(또는 임금)에게 납치되자 그 탓을 노모에게 돌리고 있다. 한편 노모가 없는 각편에서는 남편이 우렁색시의 화상을 일터에 놓고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람에 날려 원(또는 임금)의 손에 들어감으로써 우렁색시가 납치된다.

총각은 가난과 신분적 한계 때문에 배필을 구하기 어렵다보니 “이 농사 지어 누구와 먹고살고?” 라고 한탄조의 독백을 하는데, 이는 1·14·24를 제외한 전 자료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다만 자료 1·24는 총각이 낚시를 하다가 건져

---

6) 자료 5는 喪妻한 사람으로 나타난다.

올린 달팽이를 집에 가져와 보관한 것으로, 자료 14는 총각이 야산을 개간하다가 우렁이를 발견하고 집으로 가져와 장 속에 넣어 둔 것으로 나타난다. 농촌에서 흔한 것이 우렁이인데 아무런 이유나 사연도 없는 것을 장 속에 보관하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1·24는 이야기기의 본래적 모습을 망각한 제보자가 자기 나름대로 개작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총각의 독백에 어느 곳에서 “나랑 먹과 살지 누구와 먹고 살어?”라는 소리가 들린다. 이러한 총각의 독백과 우렁이의 응답은 10·16·17을 제외한 모든 자료에는 두 번 내지 세 번 반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상치 못한 소리를 들은 총각으로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다시 한 번 반복해 봄직도 한데 일회적으로 끝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따라서 이는 제보자가 자신도 모르게 생략한 것으로 보아진다.

응답한 물체가 우렁이·소라·고동·달팽이·골뱅이·조개 등 패류인데 반하여, 자료 18은 병, 자료 28은 돌, 자료 29는 땅강아지로 설정되어 있다. 자료 18은 총각이 소리가 나는 곳을 봐 보니 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속에서 처녀가 나와 “나랑 나랑 먹지 누구와 먹어. 이 소문을 내지 말고 이 병을 갖다 살강 밑이다 갖다 놓아두면 내가 삼시 시때 밥을 해 주마”라고 하여 병을 집에 가져온 것으로, 자료 28은 돌이 돌돌 굴면서 “내카 사지 누카 사노”하기에 그것을 주워 껍데에 보관한 것으로, 자료 29는 소리나는 곳에 가보니 크다란 목화벌이 있어 잡아다가 뜸(草蓆)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패류는 물 속에서 자라며 물과 여자는 생생력 상징이란 점에서 패류에서 여인이 나왔다는 것은 유기성을 지니다. 그러나 병·돌·땅강아지 등은 그렇지 않는 바, 이러한 변이는 제보자의 기억력 부족에서 온 즉흥적 개작이라 판단된다.

## (2) 우렁색시의 정체탄로

총각은 우렁이를 집에 가져 와 물통(자료 2·3·4·6·7·8·9·16·19·25·26·32)에 넣어두거나, 농 속에(자료 5·12·14·17·21·24) 보관한다.<sup>7)</sup> 장롱이나 기타 장소에 보관하는 것보다도 물통 속에 넣어 두는 것이 우렁이의

7) 그 밖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자료 11·20·27·30), 비니루막에 걸어두는 경우(자료 1), 부엌(자료 28) 또는 草蓆위에(자료 30)에 얹어 놓은 것으로 나타난다.

생리와도 부합되며, 각편의 수도 상대적으로 많다. 총각이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보니 밥상이 차려져 있고(자료4·9는 총각이 아침에 일어나니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이상히 여긴 그는 정체를 알기 위해 몰래 엿본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각편은 총각이 정체 확인의 과정을 두세 번 거친 다음에 우렁색시를 붙드는데 반하여, 자료 12·18은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한편 대부분의 각편은 우렁색시가 밥상을 차리는데 필요한 각종 자료를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대한 언급 없이 그저 우렁이 속에서 미인이 나와 밥을 짓는다는 정도이다. 그런데 자료 20은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구연되고 있어 관심이 간다.

우렁뚜껑이 열리지더니 거그서 이쁜 여자가 하나 나오더이 이렇게 치(키) 여다 대고 머리를 털은게 쌀이 우수르르 쏟아지드래야. 그 놈을, 쌀을 씻어서 밥을 하고 또 뭐, “꼬고” 하고, 막 쌀을 한 주먹을 이렇게, 불르고서는 이렇게 찌틀으(홀뜨려) 준게 닭이 와서 마당으 와 좇어먹드래네. 근게 그놈을 탁 잡아갖고서는 그 반찬을 만들고, 그리갖고선 만들고 쌀밥 혀놓고 그렇게 혀서 밥을 혀놓드래

단순, 보편성을 지향하는 구비문학, 특히 민담에서 특정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 서술하는 예는 극히 드물다. 이런 점에서 우렁색시의 밥 짓는 장면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구연되고 있다는 것은 창조적 발전이라 하겠으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총각이 우렁색시의 정체를 확인하고 붙들자, 그는 그대로 두었다면 머리를 털면 나오는 쌀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을 터인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다.<sup>8)</sup> 평생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총각 스스로가 놓친 셈인데, 이는 <나중미부> 설화의 일반적 양상과 크게 괴리된다. 다른 각편의 경우는 우렁색시가 총각의 배필로 등장하는데 반하여, 여기서는 물질적 도움만을 주기 위해 등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8) 여자가 막 나와서 밥을 할라는 놈을 깝 붙들었다야. 굿드니(그랬드니) ‘이 가만 나왔으면 쓰는데 뭇허로 그렸나?’고 그드리아. 그 언제까지 밥을, 그 머리만 털으면 나오고 그러는디, 먹고 살을 거 생전 먹고 살을 턴디 그렸다고 뭐라고 혀드리아. 근디 그 뒤로보툼은 인자 그렇게 잡아서 살을게는 그런 것은 안혀드리아.

(3) 총각의 청혼과 우령색시의 반응

밥상을 차린 처녀가 우령이 속에서 나온 여인임을 확인한 총각은 그를 붙들고 같이 살자고 한다. 여기서 총각의 청혼을 당돌한 것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누구와 먹고 살겠느냐'는 총각의 한탄 어린 독백에 우령색시는 '자기와 먹고 살지'라고 응수하였으며, 게다가 총각을 위해 밥을 짓는다는 것은 그의 아내가 되겠다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총각의 청혼에 대한 우령색시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sup>9)</sup> 그대로 순순히 응하는 경우(자료 5·10·11·14·16·17·19·20·21·27)와, 시간이 덜 되었으니 기다려달라는 경우(자료 1·2·3·4·6·8·9·24·25·28·26·29·30·32)이다.<sup>10)</sup> 후자에서 시간이 덜 되었다는 것은 현재 탈각 변신 중에 있으니 완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으로 금기에 다름 아니다.

논의의 과정에서 구체화되었지만, <나중미부>설화는 후반부에 우령색시를 두고 총각과 원(또는 임금)과의 갈등이 전개되는 것과, 갈등 없이 서사가 종결되는 각편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여기서 후반부의 갈등 유무는 금기모티프의 삼입 및 그것의 지킴 여부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설화의 보편적인 형식논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개개 자료의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 금기모티프가 없는 데도 갈등이 있는 각편(자료 10·11·14·16·17·20·27)이 있

9) 자료 12·18은 정체의 확인 과정이 생략되었고, 자료 7은 총각이 우령색시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꾀계를 부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10) 자료 2·4·26·30은 기다려야 될 구체적인 이유까지 들고 있다.  
㉠ 아직 시간이 안 됐은께 몇 달만 참어가지구 잔치를 하구 이렇게 살지. 무단히 이렇게 살면 공연히 죄루 몰린다구. 날 같은 사람 훔쳐왔다구 죄로 몰릴 테이니 며칠 몇 달만 더 기다리라(자료 2)  
㉡ 이렇게 지레 이렇게 하며넌 풍파가 생기구 하닝께, 때를 찾아라(자료 4)  
㉢ 우리가 아직 시간이 못돼서 백년해로를 하마 중간에 사고가 나서 안된다(자료 26)  
㉣ 그라믄 이기 사람이 안주 되기가, 안주 간이(기간이) 안 왔는데, 이 뿔일로 막아 내겟냐(자료 30)  
여기서 ㉠은 그 이유가 보다 구체적이어서 일면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속적인 합리화에 의한 제보자의 개작으로 짐작되기 때문에 ㉡·㉢이 보다 민담적이다. 민담은 단순성을 지향하고 단순성은 현실의 보편적 추상화에 그 의의를 지닌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는가 하면, 금기를 지켰음에도 갈등이 계속되는 것이(자료 2·8·18·28·29) 이 있고, 금기를 어겼음에도 갈등 없이 서사가 종결되는 사례도(자료 25) 있다. 이런 현상은 제보자가 금기의 제시 및 제시된 금기의 지킴 여부가 사건 전개와 밀접히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구연 과정에서의 실수 또는 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후반부의 갈등이 첨가된 각편은, 그것이 설화의 문면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금기의 제시 및 파기에, 후반부의 갈등이 없는 경우는 금기가 제시되지 않았거나 제시되었더라도 그것을 지킨 것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자료 3·5·9·19·21·25는 후반부의 갈등 없이 서사가 종결된다. 자료 3은 “아이구, 나는 당신하구 살긴 살 쟈디 아직 나올 시간이 안됐다”면서 물통 속에 들어갔다가 때가 되자 나와 부부가 된 것으로, 자료 5는 같이 살자는 총각의 말에 “그날이도(그렇지 않아도) 같이 살라고 왔다”면서 부부가 된 것으로, 자료 9는 “내가 시간이 못 됐는개로 밥은 해 놓고 그렇게는 못하겠다”면서 다시 물통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홀만에 나와 부부가 되어 잘 살았다는 것으로, 자료 25는 우렁색시가 “우리가 만내(만나) 산다 캐도 동네 어른들 알우고 해야 우리가 살지 힘도 없는데 그리 하겠느냐” 하자 총각이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자 부부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한편 자료 19·21은 총각의 청혼에 아무런 응대 없이 같이 산 것으로 되어 있다. 자료 5·19·21은 금기의 제시가 없었고, 자료 3·9는 제시된 금기를 지켰기 때문에 더 이상 갈등이 있을 수 없으나, 문제는 자료 25이다. 이는 총각이 우렁색시의 정체를 확인하고 청혼하자 때가 덜 되었다고 거절하였으나, 총각의 채근에 마지못해 다짐을 받고 동네사람들을 모아 혼례식을 올리고 정식부부가 되어 행복하게 산 것으로 결구되어 있다. 기간이 덜 되었음에서도 결혼하였다는 것은 금기의 파기임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 (4) 우렁색시의 피납

우렁색시는 원님(자료 1·4·7·8·10·11·12·14·16·18·24·29), 또는 임금(자료 2·6·17·20·26·27·28·30·32)에게 납치되는데,<sup>11)</sup> 이러한 불행

11) 자료 2·32는 우렁색시가 납치 직전에 총각과 임금이 대결하여 총각이 승리함

은 금기의 파괴, 곧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부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보였듯이 자료 2·8·18·28·29는 금기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렁색시가 납치되면서 갈등이 전개되는 것으로 결구되어 있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들은 제보자가 금기의 지킴과 지키지 않음이 사건 전개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 하겠다.

우렁색시의 정체가 원(또는 임금)에게 발각된 계기는 각편 간에 심한 변이를 보이고 있다. 곧 ㉠ 우렁색시의 몸에서 비치는 서기(자료 4·7·10·11·14·16·17·18·24·26·29·30), ㉡ 우렁색시의 화상(자료 1·6·20·28·32), ㉢ 우렁색시가 미인이라는 소문(자료 2·8), ㉣ 우렁색시가 사는 집에서 비치는 서기(자료 27) 등이 그 계기로 작용하는데, 이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다. 시어머니 대신(또는 스스로)에 남편의 일터로 밥을 이고 가는 우렁색시의 몸에서 상서로운 기운이 비치는 것을 본 원(또는 임금)이 이상이 여겨 납치해 간다. 여기서 서기(瑞氣)는 우렁색시의 존재적 연원이 천상선녀임을 나타내는 신성징표(神聖徵表)에 다름 아니다. 우렁색시의 전생이 천상선녀임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각편은 없고, 다만 우렁이 속에서 나왔다거나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다는 등 신이한 행적을 통하여 예사로운 여인이 아님을 짐작만 할뿐이다. 이런 점에서 우렁색시의 몸에서 상서로운 기운이 솟았다는 것은 그의 존재적 연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시현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납치된 계기로 작용한 여러 변이 중에서 ㉠이 원래의 내용으로 보아지며, 각편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에서도 그런 점을 짐작하게 한다.

#### (5) 우렁색시 피납의 결과

우렁색시가 원(또는 임금)에게 피납된 후의 사정은 부부가 영원히 이별하는 경우(자료 1·4·7·10·14·16·17·18·24·29)와 우렁색시의 도움으로 재합하는 경우(자료 2·6·8·11·12·20·26·27·28·30·32)로 나누어진다.

영원히 이별하는 경우, 새로 환생한 총각이 우렁색시가 있는 곳으로 가 울다 지쳐 죽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이지만(자료 4·7·10·14·16·17·18·27), 임금에게 아내를 빼앗긴 대가로 고을 원이 되었거나(자료 1), 다른 여

---

으로써 빼앗기지 않게 되는데, 논의의 편의상 납치된 것에 포함시킨다.

자를 만나 잘 살았다(자료 24·29)는 내용의 각편도 있다. 총각과 우렁색시의 인연은 예사로운 것이 아닌데다가 총각의 적극적인 구혼에 의하여 맺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총각이 아내를 빼앗긴 애절함도 없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여 잘 살았다거나 아내를 빼앗긴 대가로 벼슬살이까지 하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자료 1·24·29는 제보자의 즉흥적 개작으로 보아진다.

총각의 경우와는 달리 우렁색시는 원님이나 임금에게 잡혀가서 같이 살았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찍이 손진태 교수가 전북 전주에서 채록하였다는 자료에 의하면 우렁색시가 자기를 찾아온 청조(靑鳥)와 같이 울다가 식음을 전폐한 지 수일만에 죽어 참빗이 되었다고 하였으며,<sup>12)</sup> 최래옥 교수는 우렁색시가 원(또는 임금)과 같이 잘 살았다는 내용의외에도 시들어 죽거나, 죽어서 새나 참나무(참빗)가 되었다는 변이형도 있다고 하였다.<sup>13)</sup> 이로 볼 때 총각뿐만 아니라 우렁색시의 운명도 비극적으로 형상화된 내용이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본고에서 대상으로 한 『한국구비문학대계』에는 그런 내용의 각편이 없다. 주지하듯 『한국구비문학대계』는 설화를 전국적인 범위에 걸쳐 광범위하게 수집, 집대성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전승되고 있는 대부분의 설화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우렁색시의 운명을 비극적으로 형상화한 각편이 없다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 본래의 모습이 아님을 짐작케 한다. 곧 총각은 한이 맺혀 죽어도 우렁색시는 원(또는 임금)과 잘 살았다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데, 이 문제는 논의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이다.

다음으로 부부가 재합하는 경우를 보기로 한다. 여기에는 총각이 우렁색시를 납치해 간 원(또는 임금)을 죽이고 대신 그 자리에 올랐다는 내용의 각편이 대부분이다(자료 6·8·11·12·20·26·28). 이들 각편은 총각이 우렁색시의 음조와 트릭에 의해 원(또는 임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계기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바는 총각이 새털로 된 옷을 입고 우렁색시를 찾아간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굳이 새털로 된 옷이나 하는 점인데, 이는 앞서 보인 총각이 죽어 새가 되었다는 것과 관련이 깊다. 곧 총각이 죽어 새로

12) 손진태, 앞의 책, 33쪽.

13) 최래옥, 「관탈민녀 설화의 연구」, 장덕순선생화갑기념,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출판사, 1981, 106쪽.

환생하여 우렁색시를 찾아 간 것을 새털로 만든 옷을 입고 찾아간 것으로 변개 하면서 비극적인 내용을 호종적으로 끝맺게 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는 달리 총각이 임금과 대결하여 임금은 죽고 자신이 임금이 되었다거나(자료 2), 우렁색시만 되찾았다는(자료 32) 각편도 있다.<sup>14)</sup> 이 둘은 총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난제들을 우렁색시의 음조로 해결하는 과정을 그리다 보니 내용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그러나 앞서 보인 새털로 된 옷 운운(云云)의 이야기를 지배층과의 실질적인 대결을 통하여 승리한 것으로 변개한 것에 불과하다.

부부가 제합하는 사례에서 총각과 원(또는 임금)과의 대결은 피지배층과 지배층과의 대결이자 선과 악의 대결이기도 하다. 여기서 선 [총각] 이 승리하였다는 것은 정의에의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자 민중들의 소박하면서 기본적인 가치관의 표현이기도 하다.<sup>15)</sup> 그러나 총각이 임금까지 되었다는 것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 하겠다.

### 3. <나중미부>설화의 하위유형과 원형

이상에서 <나중미부> 설화의 전승 및 변이 양상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를 토대로 하여 하위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간 대비를 통해 한국적 원형이<sup>16)</sup> 무엇인가를 보기로 한다.

<나중미부> 설화는 ㉠ 총각과 우렁색시가 결혼하여 아무런 갈등 없이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 서사가 종결되는 유형, ㉡ 우렁색시가 원님이나 임금에게 납치되고 총각은 죽어 새가 되었다는 내용의 유형, ㉢ 총각과 우렁색시가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만나 잘 살았다는 내용의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편의상 ㉠을 행복한 결말형, ㉡를 비극적 분리형, ㉢를 호종적 제합형이라 명명

14) 자료 30은 잡혀간 우렁색시가 추물로 변신하자 임금이 돌려보냈다는 내용이다.

15)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81, 72쪽.

16) ‘한국적’이라는 관형어를 붙인 것은 <나중미부>설화가 중국설화의 영향에서 형성되었다는 전제에서이다. 곧 이 설화는 중국설화를 수용하여 우리의 풍토와 정서에 맞게 재창조되고, 이것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여러 변이형이 생긴 것으로, 한국적 원형이란 재창조될 당시의 모습을 가리킨다.

하고, 각 유형의 내용을 단락소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행복한 결말형

- ㉠ 장가 못간 늙은 총각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
- ㉡ 한탄 소리에 응답하는 우렁이를 잡아 집에 가져오다.
- ㉢ 우렁이 속에서 미인이 나와 밥을 해 놓다.
- ㉣ 총각과 우렁색시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다.

㉡ 비극적 분리형

- ㉠~㉣은 ㉠과 내용이 같음.
- ㉤ 총각이 우렁색시를 붙잡아 같이 살자고 하니 때가 덜 되었다고 하다.
- ㉥ 우렁색시는 총각의 강요에 못 이겨 같이 살다
- ㉦ 원(또는 임금)이 우렁색시를 납치해 가다
- ㉧ 총각은 새가 되어 우렁색시가 사는 곳에 가서 울다가 죽고, 우렁색시는 원(또는 임금)과 같이 살다.

㉢ 호종적 제한형

- ㉠~㉣은 ㉡의 내용과 같음.
- ㉤ 총각은 우렁색시가 시키는 대로 새털로 만든 옷을 입고 찾아가다.
- ㉥ 옷지 않던 우렁색시가 새털로 만든 옷을 입은 거지(총각)를 보고 웃다.
- ㉦ 원(또는 임금)은 우렁색시의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 자기가 새털로 만든 옷을 입다.
- ㉧ 우렁색시의 기지로 원(또는 임금)은 죽고 총각이 그 자리에 오르다.
- ㉨ 총각과 우렁색시는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잘 살다.

우선 세 유형의 전승 편수를 보면 27편 중에서 행복한 결말형이 6편, 비극적 분리형이 10편, 호종적 제한형이 11편이다. 이를 다시 후반부 갈등의 유무로 나누어 보면, 갈등이 있는 것이 21편이고 없는 것이 6편이다.

설화는 전승과정에서 내용의 축소보다 확대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행복한 결말형이 원형일 수 있다. 곧 행복한 결말형을 바탕으로 하여 확대, 재생산된 것이 비극적 분리형과 호종적 재합형이라는 것인데, 그럴 개연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행복한 결말형에는 금기모티프가 없는 각편이 있는가 하면 제시된 금기를 지킨 각편도 있으나, 그 어느 쪽이든 본래적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설화가 전승과정에 내용이 확대된다고 하지만, 원래는 없었던 금기를 삽입하면서까지 확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금기는 과거를 전제로 설정된 것이 설화의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결국 행복한 결말형은 제보자가 금기의 위반으로 인한 갈등을 망각하였거나, 또는 갈등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쪽으로 서사를 종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변이형에 불과하며, 전승 편수가 월등하게 적다는 것도 그 준거가 된다. 문제는 비극적 결말형과 호종적 재합형 중 어느 것이 원형일까 하는 점이다.

비극적 결말형과 호종적 재합형은 다 같이 금기를 어겼음에도 전자에서 총각은 아내를 빼앗기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고, 후자에서 총각은 시련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린다. 전자가 운명론적이라면 후자는 반운명론적이라 하겠다. 민담은 어떠한 고난이나 적대적인 자와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는 것이라는<sup>17)</sup> 측면에서 접근하면 후자가 원형일 수 있다. 그러나 양자의 내용을 대비하여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호종적 재합형에서 총각은 새털로 된 옷을 입고 우렁색시가 잠혀간 곳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새털로 된 옷은 비극적 분리형에서 총각이 죽어 새가 되었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이를테면 총각이 새로 환생하여 찾아간 것을 새털로 된 옷을 입고 간 것으로 변이시켰다는 것인데, 이를 통하여 비극적인 이야기를 호종적으로 결구한 것이 호종적 재합형이다. 연구자들 간에 호종적 재합형을 원형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sup>18)</sup> 총각이 새털로 된 옷을 입고 우렁색시를 찾아 간 것을 죽어 새가 되어 우렁색시를 찾아간 것으로 변이시켰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비극적 내용을 호종적으로 변이시키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자연스러운 뿐만 아니라 낙관론적 인생관을 지향하는 민담의 세계와도 어울리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나중미부>설화는 권력의 횡포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비

17) 장덕순 외, 앞의 책, 71쪽.

18) 최운식·김기창 공저, 앞의 책 참조.

극적 이야기가 원래의 모습이었는데, 이를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민중들의 낙관론적 세계관에서 재생산된 것이 호종적 제합형이라 하겠다. 이는 이 설화의 형성에 영향을 준 중국 쪽 설화와의 대비를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앞서 보였듯이 <나중미부>설화는 우리의 자생적인 설화가 아닌, 중국의 <백수소녀> 및 <오감>이야기를 수용하여 우리의 풍토와 정서에 어울리게 재창조된 것이다. 우선 두 이야기의 내용을 단락으로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백수소녀>

- ㉠ 근면 성실한 노총각인 사단(謝端)은 혈혈단신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다.
- ㉡ 읍하(邑下)에서 대라(大螺)를 주워 항아리 속에 두다.
- ㉢ 일을 하고 집에 오니 밥이 지어져 있다.
- ㉣ 이웃집에 물으니 어떤 여인이 그렇게 한다고 하다.
- ㉤ 하루는 몰래 엿보다가 밥을 짓고 대라 속으로 들어가는 여인을 붙들다.
- ㉥ 자기는 천상 선녀로서 10년 동안 발각되지 않고 도와주려 왔는데 정체가 탄로되어 가야 한다고 하다.
- ㉦ 사단이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떠나가다.<sup>19)</sup>

<오감>

- ㉠ 현리(縣吏)인 오감(吳堪)은 혈혈단신으로 근면 성실한 노총각이다.
- ㉡ 물가에서 백라(白螺)를 주워 가져와 기르다.
- ㉢ 현에서 일을 끝내고 집에 오니 밥상이 차려져 있다.
- ㉣ 이웃집 여인에게 물으니 어떤 소녀가 그렇게 한다고 하다.
- ㉤ 오감은 이웃집에 숨어 있다가 밥을 짓고 백라 속으로 들어가려는 소녀를 붙들다.
- ㉥ 천제(天帝)의 명으로 아내가 되려 왔으니 맞이해 달라고 하여 결혼하다.
- ㉦ 현감은 오감의 처를 빼앗기 위해 오감에게 현실적으로 구할 수 없는 마모

19) 原文은 李昉 편, 『太平廣記』一, 계명문화사 영인, 1982, 387~388쪽 참조.

(蟻毛)·귀비(鬼臂) 등을 구해오게 하다.

- ㉠ 오감은 아내의 도움으로 구해 바치니 현감은 다시 와두(蝸斗)를 구하여 오게 하다.
- ㉡ 아내는 불을 먹는 짐승(食火之獸)을 주면서 가져가게 하다.
- ㉢ 짐승의 몸에서 난 불에 의하여 원과 그 권속(眷屬)들은 다 죽고 오감 부부는 간 곳이 없다.<sup>20)</sup>

먼저 <백수소녀>이야기의 경우 백라에서 나온 여인은 사단을 부자로 만들어 주기 위하여 천상에서 하강하였다고 하여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내용은 <나중미부>설화의 전반부 내용과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특히 <백수소녀>에서 여인의 정체를 탄로는 금기의 위반에 다름 아닌데, 이로 말미암아 본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나중미부>설화에서 금기의 파계로 인하여 부부가 이별하는 '비극적 분리형'의 사정과 대응된다. 한편 <오감>이야기의 경우 금기모티프가 없다는 점에서 <나중미부>설화와 차이를 보이지만, 여인의 의도가 오감과 결연에 있었고, 특히 후반부의 현령과의 갈등 부분은 <나중미부>설화와 구조적 유사성을 읽을 수 있다. 이로 볼 때 <나중미부>설화는 <백수소녀> 및 <오감>이야기를 모태로 하여 형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sup>21)</sup> 여기서 주목되는 바는 양 설화의 결말구조가 호종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백수소녀>이야기에서 사단은 여인의 정체를 엿봄으로써 10년 안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sup>22)</sup> 그리고 <오감>이야기의 경우 오감부부는, 비록 여인의 신력(神力)으로 현감을 응징하였지만 간 곳을 알 수 없다고 한다.<sup>23)</sup> 간 곳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인세(人世)를 등졌다는 의미인데, 이는 곧 그들의 현실적 삶이 결코 행복하지 못하였음을 뜻한다. 결국 전자의 남주인공은 못처럼 찾

20) 원문은 같은 책, 538~539쪽 참조.

21) 김현룡 교수는 <나중미부>설화의 형성에 <백수소녀>이야기만을 대상으로 논의한 손진태 교수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나중미부>설화의 전후반의 내용과 유사한 <오감>이야기가 더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김현룡, 앞의 논문, 201쪽)

22) 十年之中 使卿居富 得婦自當還去 而卿無故竊相同掩 吾形已見 不宜復留(앞의 책, 388쪽)

23) 宰身及一家 皆爲煨燼 乃失吳堪及婦(앞의 책, 539쪽).



아온 거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금기의 위반으로 놓쳤고, 후자의 남녀주인공은 지배층의 횡포로 말미암아 현실에서의 실질적인 복락된 삶이 좌절된 셈이다. 이러한 양 설화의 결말 구조는 <나중미부>설화의 한국적 원형이 비극적이라는 앞서의 추론을 어느 정도 입증한다고 본다. 곧 중국 쪽 설화에서 그것이 금기의 위반 때문이든 지배층의 횡포 때문이든 남녀 주인공의 현실적 지향은 실패로 끝났고, 이의 영향하에서 형성된 <나중미부>설화의 형성 당시의 모습도 비극적으로 끝난 이야기라는 점이다.

#### 4. <나중미부>설화의 비극적 구조와 그 의미

전설과 민담의 장르적 변별성을 확연하게 말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전설의 주인공은 왜소한 인간이며 예기치 않던 관계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은 반면에, 민담의 주인공은 난관에 부딪혀도 이를 극복하고 마는, 곧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형이다.<sup>24)</sup> 전설은 자아와 세계가 세계의 우위에 입각해서 대결하여 세계의 경이를 보여 주는 것이라면, 민담은 자아와 세계가 자아의 우위에 입각해서 대결하여 자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르라는 견해는<sup>25)</sup> 앞의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근거할 때 <나중미부> 설화에서 비극적 분리형은 전설적이고 행복한 결말형이나 호종적 재합형은 민담적이라 하겠으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민담이라고 해서 환상적 상상 속에서 현실을 초월한 행복의 성취만을 그린다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중미부> 설화의 형성 단계의 모습이 민중의 삶의 질곡과 비애를 형상화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비극적 분리형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와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신성혼과 금기를 통한 비극성의 배태

미천한 신분의 총각은 버려진 야산을 개간하거나 머슴살이를 하면서 연명하

24) 장덕순 외, 앞의 책, 19쪽.

25)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137쪽.

는 가련한 인물이다. 그는 신분적 한계와 가난으로 말미암아 혼기를 넘기고도 배필을 구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세만 한탄하며 나날을 보낸다. ‘이 농사 지어 누구와 먹고살지’라는 총각의 독백은 자신의 절박한 현실적 처지의 표출에 다름 아니다. 총각의 결핍은 현실세계 안에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인 바, 이에 등장한 인물이 우렁색시이다. 우렁색시는 천상을 본향으로 하는 선녀이다. 그가 지상에 내려온 이유가 무엇인지는 문면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누구와 먹고살아, 나와 먹고살지’한 것으로 보아 총각과 부부의 연을 맺기 위해 하강한 존재임이 분명하다. 가난 속에서도 노모를 지성으로 섬기며 성실하게 사는 총각의 인물됨에 감동한 옥제(玉帝)가 그의 배필로서 선녀를 내려보낸 것이라 하겠다.

총각과 우렁색시의 결연은 지상적 존재와 천상적 존재의 그것이란 점에서 신성혼(神聖婚)이다. 신성혼은 신성(divinity) - 성성(sacred nature)을 지닌 인물과 속성(profane nature)을 지닌 인물의 결합, 곧 성과 속의 합일이자 비인간적 존재와 인간적 존재의 결합이다.<sup>26)</sup> 신성혼은 신화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단군신화>에서 환웅과 웅녀, <주몽신화>에서 해모수와 유화, <혁거세신화>에서 박혁거세와 알영, <수로왕신화>에서 수로와 허황옥의 혼인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신화적 인물의 존재적 연원을 보면, 천남지녀(天男地女), 곧 환웅·해모수·박혁거세·수로 등은 천상에서 하강한 신적 존재이고, 웅녀·유화·알영·허황옥 등은 지상에 존재하는 인간이다. 결국 신화적 인물의 신성혼은 천(天)·신(神)·성(聖)·귀(貴)의 속성을 지닌 남자와 지(地)·인(人)·속(俗)·천(賤)의 속성을 지닌 여자와의 결연이라 하겠으며, 이러한 양상은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봉건시대의 남성 우월적 사고를 낳게도 하였다.

그런데 <나중미부> 설화에서 총각과 우렁색시의 존재적 연원은 신화 주인공들의 그것과 상반된다. 곧 천녀지부로, 남자는 지상적 존재인데 반하여 여자는 천상적 존재이다. 이처럼 총각과 우렁색시의 공간 배치가 신화적 인물의 그것과 상반된다는 것은 그들의 결합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신화에서 남녀 주인공의 결합은, 그것이 <단군신화>나 <주몽신화>에서처럼 국조

26) 장정식, 「금기의 갈등구조」, 『한국민속학』 18집, 민속학회, 1985. 102쪽.

의 탄생을 위한 수단 내지 방편적인 것이든, <혁거세신화>나 <수로왕신화>에 서처럼 혼인 그 자체가 목적이든 간에 별다른 장애 없이 성취한다. 그러나 <나중미부> 설화에서 총각과 우렁색시의 결합은 ‘남성은 하늘을 분향으로 하고 여성은 땅을 분향으로 한다’는 신화적 관념에서 벗어난 것으로, 그들의 결합은 출발부터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신화 속의 신성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완전한 결합이 아니라 이별의 징조를 함축한 만남이라 하겠는데, 이런 사정은 <선녀와 나무꾼>설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선녀와 나무꾼> 설화는 <나중미부> 설화와 마찬가지로 천상적 존재인 선녀와 지상적 존재인 남자와의 결합, 곧 신성혼을 주지로 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설화의 전승양상을 보면 남녀가 분리되는 유형의 각편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sup>27)</sup> 나무꾼이 두레박을 타고 승천하거나, 천상으로 올라간 나무꾼이 선녀를 데리고 지상에 내려와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보다도 남녀가 분리되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이 설화의 형성 당시의 모습은 비극적인 내용임을 짐작케 한다. 곧 선녀가 자식을 안고 승천하자 나무꾼은 한숨과 눈물로 나날을 보낸다거나, 사슴의 도움으로 천상에 올라갔지만 지상에 두고 온 노모를 잊지 못하여 하강한 후에 다시 승천하지 못하고 죽는 등 비극적인 결말의 서사 유형이 이 설화의 원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비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중미부> 설화처럼 남녀주인공의 근원적·존재적 속성이 신화적 인물의 그것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출발에서부터 안고 있었던 총각과 우렁색시의 결합의 비극적 조짐은 금기의 위반으로 이어지면서 보다 구체화된다. 금기는 어떤 행위를 꺼려서 못하게 하는 것으로, 주인공의 행위 양식에 영향을 끼치고 그 운명의 변화를 초래하는 구실을 한다.<sup>28)</sup> 이러한 금기는 인간 위의 신적인 존재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파기라는 등식으로 나타나고, 파기되었을 때 비로소 그 의미를 획득한다. 우렁색시가 총각에게 때가 덜 되었으니 기다려달라는 것은 때가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말라는 의미의 잠재금지(潛在禁忌)이다.<sup>29)</sup> 그리고 그것은 옥체가 우렁색

27) 구체적 내용은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 설화 연구』, 집문당, 1993, 44쪽 표5 참조.

28) 장정식, 「금기설화연구」, 민속학회 편, 『설화』, 교문사, 1989, 7쪽.

29) 최래옥 교수는 “되돌아보지 말라”와 같이 경고가 전제된 금기를 현재금지라 하고 “穴을 잘라서는 안된다”와 같은 상식으로서 금기를 默示하고 있는 것을 잠

시에게 부여한 것으로, 성의 존재가 속의 존재로 전이하는데 수반되는 시간을 위해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때가 덜 되었다'의 '때'는 완인이 되기까지 필요한 기간이라 하겠으며, 여기서 완인은 성적 속성의 소거와 더불어 세속적인 인간화를 의미한다. <육신금기>설화에서의 '일년'이나<sup>30)</sup>, <선녀와 나무꾼>설화에서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등의 기간도 동일한 의미의 시간대이다. 결국 '때가 덜 되었다는 것'은 신성적인 존재가 세속적 인간으로 전환되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우렁색시가 몰래 밥상을 차리곤 한 것도 세속적 인간화의 과정에 다름 아니다.

앞서 총각과 우렁색시의 결연은 이들의 근원적·존재적 속성이 신화적 관념이나 봉건적 남녀관에 어긋남으로써 그 출발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들이 때가 되었을 때, 곧 금기를 지켰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금기를 지키므로써 우렁색시는 성적 속성이 소거된 세속적인 여인으로 변모되고, 따라서 그들의 결함은 천상적 존재인 선녀와 지상적 존재인 총각의 그것이 아닌, 세속적인 남녀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우렁색시가 납치되는 과정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원(또는 임금)이 우렁색시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그녀의 몸에서 발산한 서기 때문이다. 곧 우렁색시가 몸을 감춘 수풀 속에 서기가 어렸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원(또는 임금)이 그 정체를 확인, 납취해 간다. 우렁색시의 본향이 천상선녀임을 나타내는 신성징표이기도 한 서기가 그녀의 몸에서 발산하였다는 것은 그녀가 아직 세속적 인간으로 전환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총각과 우렁색시가 금기를 지켰다면 사정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녀의 몸에서 서기가 발산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납치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2) 현실적 상황논리를 통한 비극성의 구체화

앞서 총각과 우렁색시의 결연이 비극적으로 끝난 것은 금기를 어기고 결혼

재금기라 하였는데(최래옥,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1981, 110쪽), <나중미부>설화에서의 금기모티프는 후자에 어울린다.

30) “이로부터 일년 동안만 더 약속을 지켜 주었다면 나는 영영 사람이 될 수 있었습시다. 그러나 우리의 此生 인연은 벌써 끊어졌습니다”(손진태, 앞의 책, 66쪽).

한 그들 자신에게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적 상황 논리, 이를테면 고부간의 갈등, 지배층의 횡포 등과 결부하여 형상화함으로써 현실적 개연성의 획득은 물론, 비애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우렁색시의 정체가 원님이나 임금에게 노출된 사건의 발단은 시어머니 때문이다. 남편의 일터에 시어머니가 밥을 이고 가다가 하루는 신병(주로 배탈)을 빙자하여 며느리로 하여금 밥을 이고 가게 한다. 완전한 세속화가 덜 된, 신성적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우렁색시로서는 외부에의 노출을 꺼렸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고, 아들부부의 결합에 얽힌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시어머니도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을 터이다. 그럼에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밖으로 내 보낸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사안이 아니다. 며느리에 대한 아들의 지극한 애정을 목도한 시어머니의 잠재된 질투심이 발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부간의 갈등이 결과적으로 아들부부의 운명을 비극적으로 치닫게 한 단초가 된 셈이다. 새로 환생한 총각이 우렁색시가 머무르고 있는 궁궐(또는 동원)로 찾아가서 “넌들 내들 내 닻이나 넌들 넌들 네 닻이나, 너의 어머니 닻이로다”면서 슬피 운다. 이별하게 된 것이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고 밥을 이고 밖으로 나가게 한 어머니의 닻이라면서 원망하고 있는 것에서 앞의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밥을 이고 가다가 원(또는 임금)의 행차를 본 우렁색시는 몸을 감추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수풀 속에서 비친 상스러운 기운을 본 원(또는 임금)이 하인을 시켜 그 곳을 가 보게 함으로써 우렁색시는 정체가 탄로난다. 그는 자기를 잡으러 온 하인에게 반지와 비녀, 옷고름, 길옷, 심지어 속옷까지 벗어주면서 이것밖에 없더라고 말해달라고 애원한다. 길에서 속으로 점차 허물어져 가는 힘없고 가련한 우렁색시는 정절 수호를 위해 나름의 몸부림을 쳤으나, 권력자의 횡포 앞에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총각이라 하여 달리 방법이 있을 수 없다. 나이가 들도록 장가를 가지 못한 박탈된 삶, 결핍의 삶을 살았던 그는 뜻하지 않게 우렁색시를 만나서 운명의 반전을 맞게 된다. 이외의 행운이라 하겠으나, 그의 성실성을 감안하면 천우신조일 수도 있다. 우렁색시가 때가 덜 되었으니 좀 더 기다려 달라는 것을 무시하고 억지로 인연을 맺은 것도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절박한 심정에서이고, 이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

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냉엄한 현실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았다. 원(또는 임금)이 아내를 납치해 가자 그는 냉엄한 현실만 탓할 뿐 달리 길이 없다. 결국 한이 풀수에까지 맺힌 그는 피를 토하고 죽어 새로 환생하여 궁궐(또는 동원)에 가서 서럽게 운다. 총각의 새로운 환생은 죽어서나마 아내를 만나 보아야 되겠다는 절절한 심정의 환상적 장치에 다름 아니다. 구중궁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새가 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총각에게 모처럼 찾아온 거짓말 같은, 꿈같은 행복이 지배층의 횡포로 말미암아 무참하게 짓밟히고 만 것이다.<sup>31)</sup> 이런 점에서 <나중미부> 설화는 권력자, 특히 임금과 같은 절대권력자 앞에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민중의 삶을 설화적으로 실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납치되어 간 우령색시의 운명이다. 다른 자료집에는 우령색시가 자결하거나 총각을 그리워한 나머지 시들어 죽은 것으로 나타나는 각편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대상으로 한 『한국구비문학』에는 원(또는 임금)의 정실이나 소실이 되어 잘 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본래의 모습이라고 보아진다. 그들 결연의 파탄의 궁극적인 책임은 총각 쪽에 있다. 우령색시가 때가 덜 되어 결혼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서도 총각이 강요하였고,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될 우령색시를 밖으로 내 보낸 것은 총각의 어머니이다. 따라서 그들 부부의 분리에 우령색시로서는 전혀 책임이 없는 셈이다. 이런 마당에 우령색시마저 비극적 운명을 맞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전승층의 의식이 알게 모르게 작용하여 그의 운명만큼은 호종적으로 끝맺게 한 것이라 보아진다.

31) 이런 점에서 <나중미부>설화의 비극적 분리형은 <선녀와 나무꾼> 설화의 그것보다 더 비극적이다. <선녀와 나무꾼>설화의 비극적 분리형에서 지상의 모친을 만나기 위해 하강한 나무꾼은 선녀가 부여한 금기, 곧 지상에 밭을 디디지 말라는 것을 위반함으로써 죽거나, 죽어 수탉으로 환생한다. 천상에서 행복된 삶을 누리던 나무꾼이 지상에 내려온 온 것은 모친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다. 이는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이고, 노모는 아들을 위해 정성이 담긴 음식을 차려주고 그 동안 쌓였던 회포를 풀려고 한 것 또한 타당한 일이 아니다. 결국 나무꾼과 선녀가 재합하지 못한 것은 효심과 모정이 맞물리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윤리적·인간적 측면에서 보면 그 자체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자식이 노모를 버리고 자기 혼자만 천상에서 복락을 누린다는 것이 도리어 비윤리적·비인간적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나중미부> 설화는 환상과 현실이 교체되면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자력으로서는 현실을 타개할 능력이 전무한 총각이 천상에서 하강한 우렁색시와 결연을 맺었다는 내용의 전반부가 환상적이라면, 권력자의 횡포에 의해 그의 삶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내용의 후반부는 현실에 뿌리를 둔 현실적 이야기이다. 이처럼 서로 대립되는 두 세계를 통하여 전자의 세계, 곧 환상 속의 성취가 결코 현실적일 수 없음을 보이면서 권력의 횡포에 대한 민중층의 비애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테면 현실적 삶의 무게가 환상 속의 행복마저 눌러서 덮어 버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설화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환상 속의 행복마저 편안히 수긍 못하는 의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겠으며,<sup>32)</sup> 이 설화의 전승력도 여기에 있다고 보아진다. 새로 환생한 총각이 우렁색시가 납치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 부른 절절히 한서린 노래가 전승되고 있다.<sup>33)</sup> 새로 환생한 총각이 피를 토하면서 울자 우렁색시는 그 소리가 자기의 간장을 녹이지만 관가에 매인 몸이라 어찌할 수가 없다고 한탄하는 이 노래에는 권력의 횡포 앞에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민중의 질곡된 삶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것은 민중들이 처한 현실적 상황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나중미부> 설화는 총각과 우렁색시의 애정의 비극적 종말을 봉건왕조시대의 사회상과 결부하여 형상화함으로써 현실적 비애감을 증폭시키면서 민중적 공감도 획득하였다고 보아진다.

32) 신동훈, 「전설과 민담에서의 좌절과 희망의 미학」, 국문학회 편, 『국문학연구』 제7호, 태학사, 2002, 19쪽 참조.

33) 야우메라 보리수 낭계 / 짐수위리 새가 되어 / 서류화를 부르신다 / 불러내네 불러내네 목을 놓아 피를 뿜으며 / 서류화를 불러내네 / 피를 뿜아 우는 소리 / 이내 간장 저민다만 / 매인 몸이 어이하리 / 넌들넌들 내 탓이냐/ 넌들넌들 네 탓이냐 / 너의 어미 탓이로다(임석재 채록. 최래옥, 「관탈미녀형 설화의 연구」, 앞의 책, 107쪽에서 재인용).

## 5. 결 론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나중미부>설화의 전승 및 변이 양상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설화의 하위 유형을 ㉠ 총각과 우렁색시가 교혼하여 갈등 없이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 서사가 종결되는 내용(행복한 결말형), ㉡ 우렁색시가 원(또는 임금)에게 납치되고 총각은 죽어 새로 환생한다는 내용(비극적 분리형), ㉢ 총각과 우렁색시가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만나 부귀를 누린다는 내용(호종적 재합형)으로 분류하였으며, 27편 중에서 ㉠이 6편, ㉡이 10편, ㉢이 11편이다.

세 유형 중에서 권력자의 횡포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총각의 운명을 담은 내용인 비극적 분리형이 <나중미부>설화의 원형이며, 이것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행복한 결말형과 호종적 재합형이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이 설화에서 금기의 제시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금기는 파기를 전제로 설정된 것이 설화의 보편적인 양상이라는 점에서, 금기의 제시가 없거나 금기를 지켰다는 내용으로 결구된 행복한 결말형은 제보자가 금기의 파기로 인한 갈등을 망각하였거나, 갈등 없이 서사를 종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변이형이다. 한편 호종적 재합형에서 총각이 새털로 된 옷을 입고 우렁색시를 찾아간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새털로 된 옷은 비극적 분리형에서 총각이 죽어 새가 되었다는 내용에 근거한다. 총각이 죽어 새가 되어 우렁색시를 찾아간 내용을 새털로 된 옷을 입고 찾아간 것으로 변이시키면서 비극적인 이야기를 호종적으로 결구한 것이다. 결국 <나중미부> 설화의 본래의 모습은 비극적인 내용이고, 이는 이 설화의 형성에 영향을 준 중국의 <백수소녀> 및 <오감> 이야기의 결말이 호종적이지 않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나중미부> 설화의 형성 단계에서의 모습은 민중의 삶의 질곡과 비애를 형상화한 내용이라는 전제에서 비극적 분리형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적 의미를 탐색해 보았다. 총각과 우렁색시의 결연은 속적 인물과 성적 인물의 결합으로 신성혼이다. 그러나 남자는 지상적 존재이고 여자는 천상적 존재로서 공간 배치가 신화적 인물의 신성혼과 상반되는 바, 이는 그들의 결합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출발에서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던 양자의 결연은 금기



의 위반으로 이어지면서 구체화된다. 금기를 지켰다면 우렁색시는 성적 속성이 소거된 세속적인 여인으로 변모되고, 따라서 그들의 결합은 세속적인 남녀의 그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결국 그들의 결합이 비극적으로 끝난 책임은 금기를 어기고 결혼한 그들 자신(특히 결혼을 강요한 총각)에 있다고 하겠는데, 이를 고부간의 갈등, 지배층의 횡포 등 현실적 상황논리와 결부하여 형상화함으로써 현실적 개연성은 물론, 비애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우렁색시는 때가 덜 되어, 곧 성적 속성이 완전히 소거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하였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 노출되어서는 안될 몸이다. 그럼에도 시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질투심이 발동하여 남편의 일터에 밥을 이고 가게 함으로써 문제가 심각해진다. 원(또는 임금)의 행차를 본 우렁색시는 수풀 속에 숨지만 그곳에서 서기가 비치고, 이 때문에 그의 정체가 탄로되고 납치되는바, 여기서의 서기는 우렁색시가 완전한 속인이 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아내를 빼앗긴 총각은 냉엄한 현실만 탓할 뿐 달리 손을 쓸 길이 없다. 한이 맺힌 그는 피를 토하고 죽어 새로 환생하여 우렁색시를 찾아간다. 새로 환생한 것은 죽어서라도 아내를 만나 보아야 되겠다는 절절한 심정의 환상적 장치라 하겠으며, 이를 통해 권력자 앞에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민중들의 삶의 질곡을 읽을 수 있다.

<나중미부> 설화에서 전반부가 환상적 세계의 이야기이라면 후반부는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환상과 현실이라는 두 세계를 통하여 환상 속의 성취가 결코 현실적일 수 없음을 보이면서 권력의 횡포에 대한 민중들의 비애를 강조하고 있다. 현실적 삶의 무게가 환상 속의 행복마저 눌러서 덮어 버리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는 이 설화의 전승력이기도 하다. 총각이 새가 되어 우렁색시가 있는 곳을 찾아가 애절하게 부른 노래가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런 점을 반증한다.

주제어: 전승양상, 한국적 원형, 비극성, 신성혼, 금기, 현실적 상황논리

## 참고논저

### 자료

- 『삼국유사』
- 『태평광기』
- 『한국구비문학대계』 전82권

### 논저

- 김현룡, 「나중미부설화고」, 『국어국문학』 55~57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72.
-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 설화 연구』, 집문당, 1993.
- 손진태, 『한국민족설화연구』, 을유문화사, 1981.
- 신동훈, 「전설과 민담에서의 좌절과 희망의 미학」, 국문학회 편, 『국문학연구』 제7집, 2002.
- 유증선, 「〈조개색시〉 구혼민담고」, 『한국민속학』 5집, 한국민속학회, 1972.
- 이수자, 「〈우렁색시〉형 설화연구」, 『어문논집』 제7집,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1984.
- 장덕순 외 공저,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89.
- 장정식, 「금기설화연구」, 민속학회 편, 『설화』, 교문사, 1989.
- , 「금기의 갈등구조」, 『한국민속학』 18집, 민속학회, 1985.
-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 진은진, 「〈우렁색시〉 설화연구」,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1995.
- 최래욱,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1981.
- , 「관탈미녀형 설화의 연구」, 장덕순선생회갑기념,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출판사, 1981.
- 최운식, 김기창 공저, 『전래동화연구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8.

<Abstract>

## The aspects of transmit and tragedy of 'najungmibu'

Jeong, Sang-Jin

This paper was prepared for discussing the aspects of transmit and tragedy of 'najungmibu', one of the text in korean folklore.

On the ground of transmission and variation, This story-telling was classified into 3 types -the types of happy ending, tragic separation, happy reunion. In these types, I guessed, the second type was original and another were derived from tragic separation which was contained the destiny of a hero. He got discouraged from the violence of a power holder.

This story was composed by two parts. the first was about the fantastic world, the other was about the actual earth. This composition reflected the sorrow of people. And this folklore suggested that to get something in fantastic world was nothing and no reality. This means also that a happy in imaginary society was ruined by the tragedy of this world. Transmitted and sincere song sung by the dead hero who rebirth as bird and search his kidnaped wife testify these facts.